

제4교시

사회탐구 영역(사회·문화)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1. 다음 글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권력을 구성하는 핵심을 금지로 이해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형식적이고 불충분한 개념화이다. 권력은 더 이상 단순한 억압의 심금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이제 권력은 갖가지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적 기능을 수행하며, 무엇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지 정한다. 권력은 신체를 순응적인 방식으로 조직하여 통제하기 용이한 신체를 생산한다. 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구성된 지식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권력층은 이를 규범으로 삼아 개인에게 실현되어야 할 적합성과 배정되는 가치를 강제한다.

<보기>

- ㄱ.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고 본다.
- ㄴ.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 ㄷ.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라 본다.
- ㄹ.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연구자 갑은 고등학생의 자아 존중감과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가) 를 가설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갑은 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문항에는 ㉠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는 정도(5점 척도),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 등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후 갑은 학생의 모의평가 성적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았다. 갑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의 자아 존중감은 학업 성취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갑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을 기각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연구자 을은 ㉡ 상담 동아리 활동이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을은 갑의 연구를 검토한 뒤, 갑이 사용한 조사 문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별한 문항을 사용하여 학생 200명의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였다. 이후 을은 자아 존중감을 기준으로 상위 100명은 A집단에, 나머지는 B집단에 배정한 뒤, A집단과 B집단을 무작위로 50명씩 A1, A2와 B1, B2로 나누었다. 다음으로 을은 A1과 B1에게만 두 달 동안 상담 동아리에서 활동하도록 하였고, 동아리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을 다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A2와 B2의 자아 존중감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 반면, B1과 A1의 자아 존중감은 동아리 활동 이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 B1의 자아 존중감은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은 A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기>

- ㄱ. (가)에는 ‘고등학생의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이다.’가 들어갈 수 있다.
- ㄴ. 갑과 을은 모두 2차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 ㄷ. ㉠은 을의 연구에서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 ㄹ. ㉡을 반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 사람들은 과거부터 자국의 전통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 ○○를 즐겨 먹었다. 이 식재료는 갑국 유학생을 통해서 갑국을 식민 지배하던 을국으로 전달되었는데, 을국 사람들은 이를 자국의 조리법으로 조리하여 ㉠ 새로운 음식 □□를 만들었다. 이 음식이 큰 인기를 끌자 을국은 갑국의 전통 식재료를 수탈해 자국에서 □□를 대량 생산하였고, 이로 인해 ㉡ 갑국에서는 ○○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병국의 기자 A는 갑국에 방문하였다가 ○○를 접하게 되어 이에 대한 칼럼을 작성하였고, 칼럼을 을국 신문사로 송고하였다. 해당 칼럼을 통해 ○○를 접한 을국 사람들은 자국 음식과 함께 ○○를 꾸준히 향유하게 되었다. 이후 자국으로 귀국한 A는 ○○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는 병국 내에서 다른 여러 국가의 음식과 자국의 전통 음식 못지않은 인기를 얻었다.

- ① 을국과 병국 모두에서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 ② 병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
- ③ 을국과 달리 병국에서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하였다.
- ④ ㉠은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융합에 해당한다.
- ⑤ ㉡은 강제적 문화 접변에 따른 문화 동화에 해당한다.

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료 1>은 t년 갑국~병국의 계층 구성 비율을 순서와 관계없이 나타낸 자료이고, <자료 2>는 갑국~병국의 t년 대비 t+50년의 계층 구성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자료이다. 단, 갑국~병국 모두 t년과 t+50년의 계층 구조는 서로 다르며, 갑국의 t년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 아니다.

<자료 1> 각 국가별 계층 구성 비율(%)

구분	(가)	(나)	(다)
상층	30	30	15
중층	25	40	35
하층	45	30	50

* (가)~(다)는 각각 갑국~병국 중 하나임

<자료 2> 각 국가별 계층 구성 비율 변화

구분	갑국	을국	병국
상층	10%p 증가	5%p 증가	10%p 감소
중층	20%p 감소	20%p 증가	10%p 감소
하층	10%p 증가	25%p 감소	20%p 증가

- ① (나)는 을국이고 (다)는 갑국이다.
- ② t년 갑국의 하층 인구는 t+50년 병국의 하층 인구와 같다.
- ③ t년 병국의 상층 인구 비율은 t년 갑국의 상층 인구 비율의 2배이다.
- ④ t년 갑국의 계층 구조는 t+50년 을국의 계층 구조에 비해 사회 통합 실현에 유리하다.
- ⑤ t년 병국의 계층 구조는 t+50년 갑국의 계층 구조에 비해 계층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 (사회·문화)

사회 탐구 영역

5.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회가 개인의 이익 실현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보편적인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사회에 대한 올바른 규정임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이를 부인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 사회를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단지 올바른 것에 그친다. 본질이 밝혀지는 곳에서만 참된 것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사실에 상응하는 것을 확인해 주지만 본질을 밝히지는 못하는 것을 단지 올바른 것으로 부른다. 사회에 대한 참된 규정, 다시 말해서 사회의 본질을 적확하게 포착하는 규정은 사회가 인간이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제한한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보기>

- ㄱ. 사회 규범은 개인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고 본다.
- ㄴ. 사회는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실체라고 본다.
- ㄷ. 사회는 개인 이익 실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본다.
- ㄹ.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는 사회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 [3점]

갑국에는 사회 보장 제도 A~C만 존재하고, 모두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있고,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라는 질문으로는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

표는 갑국의 전체 인구 중 A~C 수혜자와 중복 수혜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와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는 A와 B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의 40%이며, 중복 수혜자 중 B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비(非)수혜자 수의 3배이다. 단, 3중 수혜자 수는 비(非)수혜자 수의 50%이다.

(단위: %)

A 수혜자	B 수혜자	C 수혜자	중복 수혜자
21	72	23	19

- * 중복 수혜자: A, B, C 중 2개 이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
- ** 3중 수혜자: A,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 *** 비(非)수혜자: A, B, C 어느 것의 혜택도 받지 않는 사람

- ① 사회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공공 부조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보다 적다.
- ②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 수는 3중 수혜자 수의 4배보다 적다.
- ③ 3중 수혜자가 아닌 사람 중 사회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비(非)수혜자 수의 3배보다 적다.
- ④ 사회 보험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중복 수혜자 중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의 6배이다.
- ⑤ 공공 부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 중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 수는 3중 수혜자 수의 4배이다.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임.) [3점]

교사 : 각 조별로 일탈 행동이 나타난 사례를 두 가지 선정하여,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함께 발표해 봅시다.

<1 조> 취업에 실패한 사람이 불법 도박을 통해서 경제적 성공을 이루고자 한 사례는 B로, 평범한 학생이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범죄를 반복하게 된 사례는 D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조> 범죄 이력을 이유로 취업에 실패한 사람이 범죄자인 자신의 미래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범죄 행각을 반복한 사례는 A로, 도덕적인 이익 추구를 중요시하던 사회적 규범이 약화되자 사기를 저지른 사람의 사례는 C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조> 학기 초에 비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선배들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며 선배들의 행동을 따라 비행을 저지른 학생의 사례는 D로, 불량 학생 취급을 받은 학생이 스스로를 문제아라 칭하며 더욱 심한 일탈을 저지른 사례는 C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교사 : 한 조는 두 사례 모두 올바르게, 다른 한 조는 두 사례 모두 올바르지 않게 발표하였습니다. 나머지 한 조의 경우, 하나의 사례는 올바르게, 다른 하나의 사례는 올바르지 않게 발표하였습니다.

- ① C와 달리 A는 일탈 규정의 객관적 기준이 부재한다고 본다.
- ② A와 달리 C는 문화적 목표와 합법적 수단 사이의 괴리가 일탈 행동을 유발한다고 본다.
- ③ D와 달리 C는 타인들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 발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 ④ 사회적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강조하는 이론은 C가 아니라 B이다.
- ⑤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 행동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시하는 이론은 D가 아니라 C이다.